# BTS '버터', 빌보드 싱글 정상 깜짝 복귀

▲ 방탄소년단(BTS). 사진=빅히트뮤직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1위 '바통 터치' 를 이뤄내는 진기록을 썼다.

빌보드는 지난 26일 BTS의 '버터' 가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에서 정상을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5월 21일 발표된 '버터' 는 발매 직후부터 7주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한 뒤 차트에 첫 데뷔한 '퍼미션 투 댄스' 에 정상을 넘겨주고 7위를 기록했다.

핫 100에서 자신의 곡으로 1위 '바통 터치' 를 한 가수는 BTS가 14번째이지만 이전 1위곡이 바로 다시 정상에 복귀하는 기록은 유례가 없다. 빌보드는 "자신의 새로운 곡으로 1위를 대체한 직후 이전 1위곡을 다시 정상에 올려놓은 사례는 BTS가 처음" 이라고 했다.

이로써 '버터' 의 통산 핫 100 1위 횟수는 8주로 늘었다.

BTS는 '버터' 첫 주 성적이 나온 지난달 2일부터 지금까지 총 9주 동안 한 번도 다른 가수에게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으며 두 달 내내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이 차트에서 최다 1위를 차지한 곡인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굿 포 유' (Good 4 U)는 BTS의 두 곡에 밀려 9주째 2위에 머물렀다.

'퍼미션 투 댄스' 로 바통 터치를 한 뒤 다시 '버터' 를 1위에 올리는 진기록은 BTS 팬덤의 위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 '복면가왕',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아시아 포맷 콘텐츠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아시아 포맷으로 한국 MBC TV 예능물 '복면가왕' 이 꼽혔다.

지난 27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영국 글로벌 미디어 컨설팅사 K7미디어는 최근 보고서에서 2020년 가장 많이 팔린 아시아 포맷으로 '복면가왕' 과 CJ ENM '너의 목소리가 보여' 를 차례로 꼽았다.

이 작품들은 최근 열린 MIPTV의 'Fresh TV Formats' 세션에서도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장 많이 리메이크된 포맷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2021 K-포맷 미주 온라인 스크리닝 주요 참가 작품(27개) 포스터 (사진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진원은 한국 방송 포맷의 미주 시장 진출을 위한 '2021 K-포맷 미주 온라인 스크리닝(2021 K-FORMAT VIRTUAL SCREENINGS IN THE US)' 행사를 다음달 6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KBS 미디어, MBC, SBS 인터내셔널, CJ E&M, JTBC 스튜디오 등 한국 주요 방송사가 참가한다.

KBS미디어 예능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 MBC 예능 '놀면 뭐하니?-환불원정대' , SBS 인터내셔널 드라마 '모범택시' , CJ E&M 드라마 '마우스' , JTBC스튜디오 드라마 '미스터' 등 27개의 다양한 한국 포맷 작품이 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된다.

워너 브라더스(Warner Bros)와 에이치비오 맥스(HBO Max), 라이언스 게이트(Lionsgate), 멕시코 방송사인 TV 아즈테카(TV Azteca) 등 미국 주요 방송 관계자와 할리우드 프로듀서·감독·에이전트, 중남미 바이어들이 온라인 행사에 참여한다.

# '혼자 사는 사람들', 토론토 영화제 등 초청

▲포스터=한국영화아카데미 KAFA

배우 공승연의 첫 장편 영화 주연작 '혼자 사는 사람들' (감독 홍성은)이 오는 9월 열리는 토론토 국제 영화제와 산세바스티안 국제 영화제에 공식 초청됐다.

배급사 더쿱은 지난 29일 '혼자 사는 사람들' 이 9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46회 토론토 영화제에서 디스커버리 섹션에 초청받았다고 전했다.

토론토 영화제는 북미 최대 영화제로 칸, 베를린, 베네치아와 함께 세계 4대 국제 영화제로 손꼽힌다. 한국 영화로는 2016년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 김지운 감독의 '밀정' 등이 스페셜 프레젠테이션 부문에 초청됐고, 2019년 '나를 찾아줘' 가 디스커버리 섹션에 초청된 바 있다.

디스커버리 섹션은 해외 신인 감독들의 작품을 알리기 위한 섹션으로, 주로 감독의 장편영화 데뷔작 혹은 두 번째 장편영화를 상영하는 부문이다.

올해 69회째를 맞는 산세바스티안 국제 영화제는 스페인의 유서 깊은 영화제로 스페인어권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영향력을 자랑한다. 지난해 한국영화로는 홍상수 감독의 '도망친 여자' , 김미조 감독의 '갈매기' 가 초청된 바 있다.

'혼자 사는 사람들' 은 5가구 중 2가구가 '1인 가구' 시대인 지금 외로움에 맞서 싸우고 있는 2030 홀로족의 삶을 그리고 있다. 단편 '굿 파더' (2018)로 홍성은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다.